

《文心雕龍》 文體論 研究**

張秀烈*

◁ 목 차 ▷

- I. 序論
 - II. 《文心雕龍》 以前の 文體論
 - III. 文體論 四大綱領
 - IV. 文體分類
 - V. 結論
-

I. 序論

先秦에서 兩漢에 이르기까지 文學과 學術은 뚜렷한 구별이 없어서 당시의 문학이란 의미는 일반 문화학술을 포괄하고 있었다. 魏晉에 이르러 문학창작이 발달함에 따라 문학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독립된 지위를 얻어 經學·史學·玄學·文學 등의 명칭이 생겨나면서 기타 학술과 분리되어 문학의 의미가 현재의 의미와 거의 비슷해졌다. 그러면서 문학의 여러 특징에 대하여 비교적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학의 여러 가지 서로 다른 體裁를 구별하면서 古代 文論 가운데 文體論 연구가 시작되었다. 중국 고대의 文體論은 魏晉에서 시작되어 齊梁 시기에 성행하였는데, 이러한 文體論 연구는 劉勰의 《文心雕龍》에 이르러 集大成 되었다고 할 수 있다.

《文心雕龍》은 南朝 齊末에 劉勰에 의하여 저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고, 二十世紀 初부터는 본격적으로 《文心雕龍》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수많은 저작과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근래에는 「龍學」이라는 新造語를 탄생시켰다. 《文心雕龍》의 문학이론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文原論(5편)·文體論(20편)·創作論(19편)·批評論(5편)의 넷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 경원대 중문과 교수

** 본 연구는 2002년도 경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이른 가운데 文體論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연구가 적었고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발표된 논문의 수는 비슷한 편쪽의 創作論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었다.¹⁾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文體論 연구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文體論의 가치가 그런 대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도 文體論의 篇數, 文體分類, 價值 등에 대하여는 異見이 있는 상태이다.

本稿는 劉勰 以前에 발표된 文體論을 살펴봄으로써 劉勰의 文體論과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 文體論 四大綱領이 文體論 20편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그 서술체계를 밝히며, 文原論·創作論·批評論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文體論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

Ⅱ. 《文心雕龍》 以前の 文體論

中國古典文學理論批評史에서 文體分類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曹丕의 《典論·論文》이 처음이다.

무릇 文이란 근본은 같으나 枝葉은 다르기에, 대개 奏議는 마땅히 典雅해야 하고, 書論은 마땅히 論理가 整然해야 하며, 銘誄는 事實을 尊崇해야 하고, 詩賦는 華麗해야 한다. 이 네 條目은 같지 않아, 그래서 그것에 능한 이는 한쪽에만 치우친다. 오직 通才만이 그 體들을 다 잘할 수 있다. (夫文本同而未異, 蓋奏議宜雅, 書論宜理, 銘誄尚實, 詩賦欲麗. 此四科不同, 故能之者偏也; 唯通才能備其體.)

「文本同而未異」에서 「本」은 모든 문장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규칙인 문학의 공통성을 말하며, 「未」은 각종 문학작품의 특수성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各種 문학에는 모두 그들의 공통적인 규칙이 있지만, 서로 다른 문체에는 또한 각자의 특수한 규칙이 있음을 말한다. 曹丕 이전의 문장에 대한 인식은 「本」에 국한되어 있었고 「未」에는 미치지 못했었다. 曹丕는 이러한 결점을 인식하고 「本同未異說」을 내어놓았는데, 그의 문체에 대한 언급은 비록 정확하고 상세하지는 않지만, 각종 문체의 서로 다른 점을 파악하고, 문체의 특징에 주의했기 때문에 當時로서는 의미 있는 견해이다. 그래서 中國古典文學理論批評史上 曹丕의 《典論·論文》은 後代

1) 中國文心雕龍學會에서 펴낸 《文心雕龍研究論文集》(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0)의 研究論著 索引을 보면, 1907년부터 1985년까지 발표된 중국·대만·홍콩·일본 등의 《文心雕龍》 관련 論著目錄이 실려있는데, 創作論과 관계된 論著가 文體論보다 거의 10배나 많은 것을 보면, 文體論 연구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적었는지 알 수 있다.

문체연구의 先聲이 되었다. 曹丕는 문체를 奏議·書論·銘誄·詩賦의 四科八類로 나누었는데 문체마다 雅·理·實·麗의 서로 다른 風格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陸機는 〈文賦〉에서 문체를 열 가지로 나누고 각 문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詩는 감정의 표현이므로 화려해야 하고, 賦는 사물을 體現하니 바르고 맑아야 한다. 碑는 공덕을 표현하므로 사실에 부합되어야 하고, 誄는 哀悼를 나타내므로 비통해야 한다. 銘은 記事가 풍부하니 간략하고 부드러워야 하고, 箴은 변화가 있으며 맑고 깨끗해야 한다. 頌은 여유가 있으며 화려해야 하고, 論은 정밀하고 명쾌해야 한다. 奏은 공평정대하며 여유롭고 전아해야 하고, 說은 선명하고 예리하며 재치가 있어야 한다. (詩緣情而綺靡, 賦體物而瀏亮, 碑披文以相質, 誄纏綿而悽愴, 銘博約而溫潤, 箴頓挫而清壯, 頌優游以彬蔚, 論精微而朗暢, 奏平徹以閑雅, 說煒曄而譎詭.)

陸機는 각종 문체를 詩·賦·碑·誄·銘·箴·頌·論·奏·說 열 가지로 나누면서 문체마다의 다른 특징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曹丕 《典論·論文》의 여덟 가지보다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문체의 특징도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열 가지 문체는 내용이 다르므로 형식상 각각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각 문체는 내용의 특수한 요구에 근거하여 文辭의 運用, 音韻의 調和, 節奏의 緩急, 情緒의 悲歡, 篇幅의 長短 등 方面에서 서로 달라야 한다. 문체의 내용에 따라서 서로 다른 作法을 채택하여 적당하고도 충분히 내용을 표현해야 한다고 하였다.²⁾ 위 인용문의 每句「而」 또는 「以」 앞의 두 글자는 대체로 文意를 나타내고 뒤의 두 글자는 文辭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고 있다.³⁾ 陸機는 이처럼 보다 진일보한 文體論을 피력하고 있는데 曹丕처럼 「本同末異說」을 주장하고 있다.⁴⁾

擘虞의 〈文章流別論〉이 문체를 頌·賦·詩·七發·箴·銘·誄·哀策·解嘲·碑·圖讖 등 열한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면 文體論의 전문저작이라고 할 수 있고, 劉勰 또한 참고를 했으나⁵⁾ 이미 전하고 있지 않아서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

2) 杜保憲 《魏晉南北朝文論選析》(山東教育出版社, 1983년), 36쪽 참조.

3) 夏傳才 《中國古代文學理論名篇今譯》第一冊(南開大學出版社, 1985년), 179-180쪽 참조.

4) 陸機 〈文賦〉: 「體有高殊, 物無一量, 紛紜揮霍, 形難爲狀, …… 雖區分之在茲, 亦禁邪而制放, 要辭達而理舉, 故無取乎冗長。」

5) 黃侃 《文心雕龍札記》: 「《文心》多襲前人之論, 而不據其鈔襲, 未若世之君子必以己習爲貴也. 卽如(頌讚)篇大意本之《文章流別》, 〈哀弔〉篇亦有取於擘君, 信乎通人之識, 自有殊於流俗矣。」(臺灣, 文史哲出版社, 1973) 10쪽.

여 추측할 뿐이다.⁶⁾

齊梁시기에 文體論은 전성시기를 맞게되면서 《文心雕龍》과 《昭明文選》이 출현하였다. 《昭明文選》은 문학총집으로 문체를 논한 전문 서적으로 칠 수 없고 오직 《文心雕龍》만이 중국에서 현존하는 최초의 文體論의 전문 서적이라 할 수 있다.

曹丕의 《典論·論文》, 陸機의 〈文賦〉, 擘虞의 〈文章流別論〉 등의 문체에 대한 언급은 《文心雕龍》의 방대한 분량과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보면 《文心雕龍》을 따라갈 수 없으나, 이러한 작품들의 문체에 대한 서술은 劉勰의 《文心雕龍》에 훌륭한 자료로 제공되었다.⁷⁾ 다시 말해서 中國古典文學理論批評史에서 文體論은 曹丕로부터 시작되어 陸機와 擘虞를 거쳐, 劉勰이 以前의 업적을 토대로 하여 全面的이고도 體系의인 文體論을 제기하였으니 劉勰을 文體論의 集大成者라고 할 수 있다.

Ⅲ. 文體論 四大綱領

劉勰은 〈序志〉篇에서 《文心雕龍》 上篇의 體系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文心雕龍》의 著述은 道에 근본을 두고, 聖人을 스승으로 삼으며, 經典을 規範으로 하고, 緯書를 參작하고, 離騷에서 變遷을 구했으니, 文學의 중심사상이 다 갖추어 졌다고 하겠다. 韻文(有韻之文)과 散文(無韻之筆)을 서술함에 있어 樣式에 따라 분류하여, 各 文體의 起源을 追究하여 그 變遷을 서술하고, 各 文體의 名稱을 풀이하여 意義를 밝히며, 문장을 選別하여 모범 篇章을 정하고, 이치를 밝혀 系統을 세웠으니, 上篇의 강령이 분명해졌다.(蓋文心之作也, 本乎道, 師乎聖, 體乎經, 酌乎緯, 變乎騷, 文之樞紐, 亦云極矣; 若乃論文敘筆, 則固別區分, 原始以表末, 釋名以章義, 選文以定篇, 數理以學統, 上篇以上, 綱領明矣.)⁸⁾

6) 王更生 《文心雕龍研究》(臺灣, 文史哲出版社, 1984년), 312쪽 참조. 《晉書·擘虞傳》: 「擘虞……撰文章志四卷, 注解三輔決錄, 又撰古文章類聚, 區分爲三十卷, 名曰流別集, 各爲之論, 辭理愜當, 爲世所重。」. 《隋書·經籍志》: 「各爲條貫而論之, 謂之流別。」

7) 劉勰은 〈序志〉篇에서 曹丕의 《典論·論文》과 陸機의 〈文賦〉 및 擘虞의 〈文章流別論〉 등의 得실을 언급하고 있다. 〈序志〉: 「詳觀近代之論文者多矣; 至如魏文述典, 陳思序書, 惠暉文論, 陸機文賦, 仲治流別, 宏範翰林, 各照隅隙, 鮮觀衢路, 或臧否當時之才, 或詮品前修之文, 或汎舉雅俗之旨, 或據題篇章之意, 魏典密而不周, 陳書辯而無當, 惠論華而疏畧, 陸賦巧而碎亂, 流別精而少功, 翰林淺而寡要。」

8) 本稿에서 引用하는 모든 《文心雕龍》의 原文은 王更生の 《文心雕龍讀本(上·下)》(臺灣, 文史哲出版社, 1988)에 依據한 것임.

「本乎道，師乎聖，體乎經，酌乎緯，變乎賦」는 《文心雕龍》의 卷一인 〈原道〉·〈徵聖〉·〈宗經〉·〈正緯〉·〈辨騷〉 다섯 편을 말한다. 이 「文之樞紐」 다섯 편의 주요 내용은 《文心雕龍》 五十篇에 一貫되게 나타나는 立論의 중심으로, 作家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劉勰의 文學思想이고, 《文心雕龍》의 體系上으로 보면 文學本原論(文原論)이라고 稱할 수 있다. 「論文敘筆」은 《文心雕龍》의 卷二에서 卷五까지의 劉勰의 文學體裁論(文體論) 二十篇⁹⁾의 文장을 가리키는데, 「論文」은 有韻之文인 〈明詩〉·〈樂府〉·〈詮賦〉·〈頌贊〉·〈祝盟〉·〈銘箴〉·〈誄碑〉·〈哀弔〉·〈雜文〉·〈諧謔〉 前十篇을 말하며, 「敘筆」은 無韻之筆인 〈史傳〉·〈諸子〉·〈論說〉·〈詔策〉·〈檄移〉·〈封禪〉·〈章表〉·〈奏啓〉·〈議對〉·〈書記〉 後十篇을 말한다. 劉勰은 이 文體論 二十篇을 「原始以表末」·「釋名以章義」·「選文以定篇」·「數理以舉統」의 네 가지 강령에 의거하여 서술하고 있으니, 이 네 가지 강령은 〈明詩〉부터 〈書記〉까지 文體論 二十篇 每篇의 일관된 서술체계라고 할 수 있다.¹⁰⁾

1. 原始以表末

「原始以表末」은 各種 文체의 起源과 發展變化를 말한다. 「原始」는 「各種 文체의 起源을 追溯한다」는 뜻이고, 「表末」은 「各種 文체의 發展變化를 서술한다」는 의미이다. 文체의 기원과 발전변화에 대해서는 文體論 二十篇의 어느 篇章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제는 천하를 통치하고 그 말은 신성하다. 병풍 앞의 御座에서 침묵할지라도 政令이 세상에 퍼지니 그것은 詔策의 힘이다. 예전에 黃帝·堯·舜 시대에는 詔策을 命이라고 불렀다. 命의 뜻은 姓氏 제정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命은 夏·商·周 三代에는

9) 范文瀾이 1929년에 출판된 《文心雕龍注》에서 〈辨騷〉篇을 文體論에 포함시켜 文體論을 모두 21篇이라고 한 후, 《文心雕龍》을 연구하는 중국의 학자들이 현재까지도 이를 많이 채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학자는 牟世金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劉勰은 〈序志〉篇에서 「文心之作也, 本乎道, 師乎聖, 體乎經, 酌乎緯, 變乎賦, 文之樞紐, 亦云極矣」라고 하여 〈辨騷〉篇을 명백히 文原論 5篇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文體論은 20篇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范文瀾 《文心雕龍注》 原道篇 注(二) 「文心上篇分類表」 참조.

10) 《札記》: 「『原始以表末』四句, 謂〈明詩〉篇以下至〈書記〉篇, 每篇敘述之次第. 茲舉〈頌贊〉篇以示例: 自「昔帝嚳之世」起, 至「相繼於時矣」止, 此「原始以表末」也. 「頌者容也」二句, 「釋名以章義」也. 「若夫子雲之表光圖」以下, 此「選文以定篇」也. 「原夫頌惟典雅」以下, 此「數理以舉統」也. 《雜記》: 「茲舉〈明詩〉篇以示例: 自「大舜云」起, 至「莫非自然」, 此釋名以章義也. 「昔萬天氏樂辭云」起至「其來久矣」, 原始以表末也. 「自商及周」起, 至「而續頌之要可明矣」, 選文以定篇也. 以下數理以舉統.」 이상 두 인용문은 詹鍈 《文心雕龍義證(下)》(上海古籍出版社, 1989년) 1927쪽에서 재인용.

詔와 勅을 함께 포괄했다. 勅은 군사를 훈계하는데 사용하였고 詔는 정치를 시행하는데 사용하였다. 命이란 하늘로부터 온 것이어서 관리를 임명하고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는데 사용하였다. <易經·姤卦·象辭>에 「천자는 명을 시행하여 사방을 훈계한다」 했다. 시행된 命이 백성을 움직이는 것은 천하에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모두 命이라 불렀다. 命이란 使의 뜻이다. 秦이 천하를 통일하고 命을 고쳐서 制라고 하였다. 漢初에 제도가 정해지고 命은 넷으로 나뉘어졌다. 첫째가 策書이고, 둘째가 制書이고, 셋째가 詔書이고, 넷째가 敕敕이다. 敕敕이란 지방관리의 훈계에, 詔書는 文武百官에 대한 포고에, 制書는 사면을 내리는 데에, 策書는 王侯를 봉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策」은 「簡」이고, 「制」는 「裁」이며, 「詔」는 「告」이고, 「敕」은 「正」이다. <詩經>에는 「이 簡書를 경의한다」고 했고, <易經>에서는 「군자는 예의와 법도를 제정한다」고 했으며, <周禮>에서는 「明神의 詔」라 했고, <尙書>에서는 「天命으로 바로잡는다」라고 했다. 이처럼 모두 經典에 의거해서 이름지어졌다. ……

文帝와 景帝 이전의 詔書는 내용이 진지하지 못하고 난잡하였으나 武帝 때에는 유학을 존중하여 말의 선택이 넓고도 깊이가 있었다. 三王을 책봉했을 때의 策書는 경전의 訓詁와도 같아 勸戒가 심원하고 전이하여 후세의 모범이 되었다. …… 宣帝가 陳遂에게 보낸 詔書에는 옛친구에 대한 두터운 정이 나타나있다. 光武帝는 세상의 어지러움을 바로잡고 詔策에 유의하였으나, 忽忘中에 기쁨과 노여움으로 인하여 때로는 균형 잃었다. …… 明帝와 章帝는 유학을 숭상하여 전이한 詔書가 자주 나타났다. 和帝와 安帝 때에는 정치가 해이해져서 尙書省에는 인제가 없어, 敕敕을 내릴 때마다 외부의 손을 빌릴 정도였다. 建安 말년에는 文理를 중시하는 기풍이 일어나 潘勗의 <冊魏公九錫文>은 전이하여 가장 뛰어났다. …… 魏晉以後 詔策은 中書省에서 담당하였고 劉放과 張華는 모두 그러한 임무를 맡았는데 그들의 詔策은 사람들의耳目을 충족시켰다. 魏文帝의 詔書는 표현과 내용이 뛰어났는데 「권위를 행하고 복을 내린다」라는 구절은 수많은 고려 가운데 하나의 실수일 것이다! 쫓이 증흥하자 오직 明帝만이 文才를 소중히 여겨 溫嶠는 文辭의 청신함으로 인해 中書省의 관리가 되었다. 이때부터 詔策의 체제가 갖추어져 이러한 기풍이 전하게 되었다.¹¹⁾

「詔策」은 帝王이 신하에게 알리는 글로서 古代 조정에서 사용되었던 응용문의 일종인데, 위 예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詔策」이라는 문체의 기원은 黃帝·

11) <詔策>: 「皇帝御萬, 其言也神. 淵嘿黜戾, 而響盈四表, 其唯詔策乎! 昔軒轅唐虞, 同稱爲命. 命之爲義, 制姓之本也. 其在三代, 事兼詔誓. 誓以訓戒, 詔以敷政. 命喻自天, 故授官錫胤. 易之姤象: 「后以施命詔四方」. 詔命動民, 若天下之有風矣! 降及七國, 並稱曰命. 命者使也. 秦并天下, 改命曰制. 漢初定儀, 則有四品: 一曰策書, 二曰制書, 三曰詔書, 四曰敕敕. 敕敕州郡, 詔詔百官. 制施敕命, 策封王侯. 策者, 簡也. 制者, 裁也. 詔者, 告也. 敕者, 正也. 詩云: 「畏此簡書」. 易稱: 「君子以制敕虞」. 禮稱: 「明神之詔」. 書稱: 「敕天之命」. 並本經典以立名目. …… 觀文景以前, 詔體浮雜: 武帝崇儒, 遷曹弘典, 策封三王, 文同綱典; 勸戒淵雅, 垂範後代. …… 孝宣置書: 價博于陳遂, 亦故舊之厚也. 遺光武撥亂, 留意斯文, 而造次喜怒, 時或偏滯. …… 暨明章崇學, 雅詔間出. 和安政弛, 禮闈辭才, 每爲詔敕, 假手外賄. 建安之末, 文理代興, 潘勗九錫, 典雅逸羣. …… 自魏晉詔策, 職在中書, 劉放張華, 並管斯任, 施令發號, 洋洋盈耳. 魏文帝下詔, 辭義多偉. 至於作或作福, 其高處之一弊乎! 晉氏中興, 唯明帝崇才, 以溫嶠文清, 故引入中書. 自斯以後, 體憲風流矣.」

堯·舜 시대로 소급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命」이라 하였고, 三代에는 「命」의 범위가 확대되어 군사의 훈계에 사용된 「誓」와 정치의 시행에 사용된 「誥」를 함께 포괄하고 있다. 진시황 때에는 「制」라 하였고, 漢에 와서는 용도에 따라 「策書」·「制書」·「詔書」·「戒敕」의 넷으로 나뉘어져 다양해졌는데, 이 네 문체는 모두 《詩經》·《易經》·《周禮》·《尚書》 등의 經典에 의거해서 이름지어졌다. 文帝와 景帝 이전의 詔書는 武帝 때보다 내용 면에서 떨어졌으며, 光武帝에서 和帝와 安帝에 이르기까지는 대부분 외부의 힘으로 만들어져 膾炙人口의 작품이 드물었다. 魏晉이후 中書省에서 조책을 담당하고부터 조책의 체제가 정비되어 後代에 전해지게 되었다. 위 예문을 보면 劉勰은 조책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히 서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발전변화 과정을 시대별로 간단명료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은 文學史의 서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¹²⁾ 「同稱爲命」句는 《書經·堯典》의 「乃命羲和」와 《書經·舜典》의 「命汝典樂」에 의거한 것이고, 「其在三代, 事兼誥誓. 誓以訓戎, 誥以敷政」의 「誓」와 「誥」는 모두 《書經》에 의거한 것이다.¹³⁾ 이처럼 劉勰은 문체의 起源¹⁴⁾과 발전변화(原始以表末)를 論하면서 宗經의 관점에 바탕을 두고 經典의 특징인 「訓誥」와 「典雅」를 具備한 작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策封三王, 文同訓典; 勸戒淵雅, 垂範後代.」, 「明章崇學, 雅詔間出.」, 「潘勗九錫, 典雅逸羣.」 등)

2. 釋名以章義

「釋名以章義」는 各種 文體의 命名의 由來와 涵義를 말한다. 「釋名」은 「各種 文體의 命名의 由來를 설명한다」는 뜻이고, 「章義」는 「各種 文體의 命名의 涵義를 천명한다」는 의미이다. 「有韻之文」의 첫 편인 〈明詩〉篇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위대한 舜 임금은 「시는 사람의 뜻을 말하고, 노래는 말을 길게 읊조리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성인의 이런 설명으로 시의 의미가 분명해졌다. 이런 까닭에 「마음에 있으면 뜻이고, 말로 표현하면 시가 된다」,¹⁵⁾고 하였으니, 文辭로 뜻을 담는다는 시의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시는 「지낸다」는 의미로, 사람의 情性을 바르게 지

12) 王禮卿 《文心雕龍通解(下冊)》(臺灣, 黎明文化公司, 1986년), 921쪽 참조.

13) 詹鍔 《文心雕龍義證(中)》(上海古籍出版社, 1989년), 724쪽注(五)와 726쪽注(二) 참조.

14) 劉勰은 〈宗經〉篇에서 「詔策章奏, 則書發其源」라고 하여 詔策의 기원이 《書經》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15) 《詩·大序》: 「詩者, 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思無邪」¹⁶⁾이니 「持」로 詩를 해석한 것은 공자의 생각과 부합된다.(大舜云:「詩言志, 歌永言; 聖謨所折, 義已明矣. 是以「在心爲志, 發言爲詩; 舒文載實, 其在效乎! 詩者, 持也, 持人情性; 三百之蔽, 義歸無邪, 持之爲訓, 有符焉爾.)

이 구절은 〈明詩〉篇의 첫 단락이다. 劉勰은 「詩」體 命名의 由來를 《尚書·堯典》의 「詩言志」에서 찾았으며, 「詩」體 命名의 涵義에 대해서는 「志」·「持」·「思無邪」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詩者, 持也」句를 보면 「詩」를 同韻字인 「持」로 해석하고 있는데,¹⁷⁾ 이러한 「聲訓」의 방법은 〈銘箴〉篇에서 「銘」을 「名」으로, 〈諫碑〉篇에서 「諫」를 「累」로 해석하고 있는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¹⁸⁾

다음은 〈史傳〉篇의 첫 단락의 일부이다.

《禮記·曲禮》에 이르기를 「史官은 붓을 준비하여 기록한다」라고 했다. 「史」는 「使」의 의미이다. 붓을 든 사관이 군왕의 좌우에 있으니 기록하도록 시킨다는 말이다. 左史는 말을 기록하고 右史는 행동을 기록했다. 말을 기록한 경전은 《尚書》이고 행동을 기록한 경전은 《春秋》이다. (曲禮曰:「史載筆. 史者, 使也. 執筆左右, 使之記也. 古者左史記言, 右史記事. 言經則尚書, 事經則春秋也.)

劉勰은 「史」體 命名의 由來를 《禮記·曲禮》의 「史載筆」에서 찾고 있으며, 命名의 涵義는 시킨다는 「使」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釋名以章義」는 각종 문체에 대한 定義에 해당하므로 文體論 四大綱領 가운데 그 서술이 가장 간단하다.¹⁹⁾ 劉勰은 한 종류의 문체만을 다루고 있는 〈明詩〉·〈樂府〉·〈詮賦〉·〈封禪〉篇 등에서 「釋名以章義」의 서술은 비교적 쉽게 처리하고 있지만, 한 篇에 두 종류 이상의 문체가 있을 때에는 대부분 나누어 처리하는 「分釋」의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또한 두 문체를 종합하여 동시에 서술하는 「合釋」의 경우도 있다.²⁰⁾

16) 《論語·爲政》: 「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思無邪.」」

17) 《詩緯·含神霧》에서 「詩者, 持也」라고 하였는데, 「詩」와 「持」는 段玉裁의 〈六書音韻表〉에 보면 모두 第一部에 속하는 同韻字로, 이처럼 「詩」를 同韻字인 「持」로써 해석하는 것을 「聲訓」, 또는 「音訓」이라 한다. 王更生 《文心雕龍讀本(上)》(臺灣, 文史哲出版社, 1988), 87쪽 注(六) 참조.

18) 〈銘箴〉: 「故銘者, 名也. 觀器必名焉, 正名審用, 貴乎慎德.」, 〈諫碑〉: 「諫者, 累也. 累其德行, 旌之不朽也.」, 이러한 「聲訓」의 방법은 〈詮賦〉와 〈頌贊〉에서도 찾을 수 있다. 〈詮賦〉: 「賦者, 鋪也. 鋪采摛文, 體物寫志也.」, 〈頌贊〉: 「頌者, 容也. 所以美盛德而述形容也.」.

19) 〈樂府〉: 「樂府者, 聲依永, 律和聲也.」

〈詮賦〉: 「詩有六義, 其二曰賦. 賦者, 鋪也. 鋪采摛文, 體物寫志也.」

〈頌贊〉: 「四始之至, 頌居其極. 頌者, 容也. 所以美盛德而述形容也. …… 贊者, 明也, 助也.」

이상 〈明詩〉와 〈史傳〉篇 두 인용문을 보면 文體 命名의 由來와 涵義(釋名以章義)의 서술에서 《詩經》·《書經》·《禮記》·《春秋》등의 경전에 나타난 견해를 인용하고 있으며, 〈明詩〉篇에서는 특히 「徵聖」과 「宗經」의 기본 입장에서 「言志」와 「持人情性」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選文以定篇

「選文以定篇」은 各種 文體의 代表的인 작가와 작품을 말한다. 「選文」은 「各種 文體의 代表的인 작가와 작품을 取捨選擇한다」는 뜻이고, 「定篇」은 「各種 文體의 代表的인 작가와 작품을 평론한다」는 의미이다. 劉勰은 이 「選文以定篇」 부분의 서술에서 「單論」·「合論」·「比論」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單論」은 作家 한 사람에게 대하여 그 우열을 서술한 것으로, 「單論」에 대한 예는 다음 〈雜文〉篇의 馬融에 대한 서술과 〈章表〉篇에서의 曹植의 「表」에 대한 서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직 馬融의 〈七屬〉만이 賢人을 서술하면서 儒道로 돌아갔는데, 비록 文辭가 뛰어나긴 않지만 用意는 매우 탁월하다.(唯七屬敘賢，歸以儒道，雖文非拔群，而意實卓爾矣。)21)〈雜文〉

曹植의 表는 수많은 작가들 가운데에서도 으뜸이다. 그의 작품을 보면 내용이 풍부하면서 음률이 조화롭고, 문사가 淸麗하면서 情志가 뚜렷하며, 사물에 따라 교묘함을 이루었으며 변화에 따라 妙趣를 자아냈다. 고백을 참음에 여유가 있듯이 緩急을 조절할 수 있었다.(陳思之表，獨冠羣才，觀其體贍而律調，辭淸而志顯，應物製巧，隨變生趣，執轡有餘，故能緩急應節矣。)〈章表〉

「合論」은 동일한 문체의 작가들을 열거하여 그 특색을 함께 서술한 것이며, 「比

20) 〈章表〉篇에서는 「原始以表末」의 서술 이후, 「章者，明也。詩云：『爲章於天』，謂文名也。其在文物，赤白曰章。表者，標也。禮有表記，謂德見於儀。其在器式，投景曰表。章表之目，蓋取諸此也。」라고 하여 「章」과 「表」의 「釋名以章義」를 동시에 서술하는 「合釋」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奏啓〉篇에서는 첫 단락에 「奏」體의 「釋名以章義」를 「奏者，進也。言敷于下，情進于上也。」라 하였고, 이어서 「奏」體의 원류와 代表的인 작가와 작품 및 작법을 서술하고 나서, 「啓」體의 「釋名以章義」를 「啓者，開也。高宗云：『啓乃心，沃朕心』，蓋其義也。」라 하여 「分釋」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王更生 《文心雕龍研究》(臺灣，文史哲出版社，1984년)，317쪽 참조.

21) 陸侃如·牟世金은 이 인용문에 대한 주석에서 「여기에는 劉勰이 작가와 작품을 평론하는 데 있어서의 잘못된 관점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문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유가사상에 부합한다고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文心雕龍譯注(上·下)》(濟南，齊魯書社，1984) 172쪽 注 (24) 참조.

論」은 작가 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²²⁾ 「原始以表末」과 「選文以定篇」은 그 대상이 기본적으로 같고 서술의 편의상 함께 서술되어 있는 篇章이 많은데, 「原始以表末」은 문체의 起源과 發展變化의 탐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選文以定篇」은 각 시대 대표적인 작품에 대한 평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다르다.

〈明詩〉篇과 〈詮賦〉篇은 劉勰의 「選文以定篇」 서술의 두 가지 기본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明詩〉篇은 작가위주로 되어 있고, 〈詮賦〉篇은 작품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은 작가와 작품을 결합하고 평론을 통하여 각종 문체의 창작이 역대로 얻은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文心雕龍》의 文體論 二十篇에서 「選文以定篇」에 해당하는 서술을 보면, 劉勰이 열거하고 평론한 작가와 작품들은 대체로 모두 당시의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選文以定篇」部分은 上古에서 六朝에 이르기까지 文體分類에 의한 하나의 文學史라 할 수 있다. 특히 〈明詩〉篇은 八百餘字의 짧은 편폭으로 先秦이래 천여 년 동안의 詩歌의 源流와 발전변화 및 각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의 성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니 한 편의 「詩史」라 아니할 수 없다.²³⁾ 「選文以定篇」部分에서 언급한 많은 작품들은 이미 失傳되었고 어떤 작가는 이 文體論 부분에서만 언급되어 비로소 그 작가에 대하여 다소나마 알게 되었으니 史料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²⁴⁾

4. 數理以舉統

「數理以舉統」은 各種 文體의 風格과 作用, 作法과 禁忌事項 등을 말한다. 「數

22) 「單論」: 〈哀序〉: 「觀其虛瞻辭變, 情洞悲苦, 敘事如傳, 結言摹詩, 促節四言, 鮮有緩句: 故能義直而文媛, 體舊而趣新。」

「合論」: 〈詮賦〉: 「觀夫荀結陳語, 事義自環, 宋發夸談, 實始淫麗, 枚乘兔園, 舉要以會新, 相如上林, 繁類以成豔, 賈誼鵠鳥, 致辨於情理; 子淵洞簫, 窮變於聲貌; 孟堅兩都, 明絢以雅瞻; 張衡二京, 迅發以宏富; 子雲甘泉, 構深瑤之風; 延壽靈光, 含飛動之勢; 凡此十家, 並辭賦之英傑也。」

「比論」: 〈史傳〉: 「子長繼志, 甄序帝勳, …… 爾其實錄無隱之旨, 博雅弘辯之才, 愛奇反經之尤, 條例賅落之失, 叔皮論之詳矣, 及班固述漢, 因循前業, …… 至於宗經矩聖之典, 端緒豐贍之功, 違親攘美之罪, 徵賄鬻筆之愆, 公理辨之究矣。」

이상 「單論」·「合論」·「比論」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王更生 《文心雕龍研究》(臺灣, 文史哲出版社, 1984년), 317-321쪽 참조.

23) 詹鍔 《文心雕龍義證(上)》: 「這是一篇詩史, 它具體地說明了詩體源流和詩歌發生發展的規律, 並根據他的理論來說明各個時期代表作家作品的成就, 還根據政治社會的升沉, 來解釋各個時代的詩風。」(上海古籍出版社, 1989년), 171쪽.

24) 陸侃如·牟世金 《文心雕龍譯注(上下)》(濟南, 齊魯書社, 1984) 54쪽 참조.

理」는 「各種 文體의 風格과 作用을 논술한다」는 뜻이고, 「舉統」은 「各種 文體의 作法과 禁忌事項을 설명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數理以舉統」은 오늘날의 「文章分體作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²⁵⁾ 文體의 風格에 대한 언급은 다음의 〈明詩〉篇에서 찾을 수 있다.

四言은 正體로서 典雅와 溫潤이 근본이고, 五言은 流行體로서 清新과 華麗 위주이다. 華麗와 樸實은 쓰임이 다르니, 오로지 작자의 才華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므로 張衡은 典雅함을 얻었고, 嵇康은 溫潤함을 머금었으며, 張華는 清新함을 응집하였고, 張協은 華麗함을 발휘했다.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은 曹植과 王粲이며, 한쪽에 뛰어난 사람으로는 左思와 劉楨이다. 그러나 詩에는 일정한 체제가 있으나 文思는 같지 않아, 작자는 性情과 本分에 따르게 마련이니, 두루 갖추기는 어렵다. (四言正體, 則雅潤爲本; 五言流調, 則清麗居宗, 華實異用, 唯才所安. 故平子得其雅, 叔夜含其潤, 茂先凝其清, 景陽振其麗, 兼善則子建仲宣, 偏美則太冲公幹. 然詩有恒裁, 思無定位, 隨性適分, 鮮能通圓.)

劉勰은 《詩經》이 四言 위주이기 때문에 四言이 正體이고 「雅潤」의 특징이 있으며, 당시 유행하던 五言詩는 文辭의 文彩를 중시했기 때문에 「清麗」의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두 詩體의 특징을 「雅潤」과 「清麗」로 구별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四言詩는 典雅하고 溫潤하게 지어야하고, 五言詩는 清新하고 華麗하게 지어야한다는 劉勰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또한 張衡·嵇康·張華·張協 네 사람 각각의 특징을 보면 劉勰은 시가의 특징을 「雅」·「潤」·「清」·「麗」의 네 가지로 귀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雅」·「潤」이라는 내용과 「清」·「麗」라는 형식의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한 「文質並重」의 의미이다. 그리고 詩歌에는 일정한 체제가 있지만 작자마다 性情과 才華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시가의 창작에 있어서도 지향하는 바가 달라 작품의 風格은 서로 다르다는 견해도 보인다. 이러한 관점은 創作論 가운데 風格과 性情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體性〉篇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²⁶⁾

文體의 作用에 대한 언급은 다음 〈檄移〉篇에서 찾을 수 있다.

25) 蔡宗陽 《劉勰文心雕龍與經學》(國立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 博士論文, 1989.5) 131쪽 참조

26) 〈詮賦〉篇 「原夫登高之旨, 蓋觀物興情, 情以物興, 故義必明雅; 物以情觀, 故詞必巧麗. 麗詞雅義, 符采相勝, 如組織之品朱紫, 畫繪之差玄黃, 文雖雜而有質, 色雖糝而有儀, 此立賦之大體也.」에 나타난 「情」·「物」·「詞」 세 가지의 밀접한 관계를 보면, 창작론 가운데 「情」과 「物」의 관계를 다룬 〈物色〉篇과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언급한 〈情采〉篇의 기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陸侃如·牟世金 《文心雕龍譯注(上)》(濟南, 齊魯書社, 1984) 55-56쪽 참조.

檄文과 移文은 文武에 함께 운용되었다. 군사방면에서는 逆黨에게는 檄文을 사용하고, 순종하는 민중에게는 移文을 사용했다. 격문과 이문으로 민심을 깨닫이 했는데 부계처럼 단단하며, 의미와 공용은 조금 다르나 체제와 의의는 대체로 같다.(檄移爲用, 事兼文武; 其在金革, 則逆黨用檄, 順命資移; 所以洗濯民心, 堅同符契, 意用小異, 而體義大同.)

檄文과 移文은 文武에 함께 사용되었지만, 그 대상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했으며, 두 문체 모두 「民心을 깨닫이 한다」는 중요한 작용을 가지고 있다.

作法과 禁忌事項에 대한 언급은 다음의 〈頌贊〉篇에서 찾을 수 있다.²⁷⁾

頌은 내용이 전아하고 아름다우며 문사는 맑고 광채가 있어야 한다. 묘사가 賦와 유사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화려해서는 안 된다. 경건하고 신중함은 銘과 같으나, 銘의 권고와 警戒의 의미와는 다르다.(頌惟典懿, 辭必清探, 數寫似賦, 而不入華侈之區; 敬慎如銘, 而異乎規戒之域.)

頌은 「전아하고 아름다우며 문사가 맑고 광채가 있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화려해서는 안 된다」는 作法과 禁忌事項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劉勰의 「數理以舉統」은 역대 각종 문체의 창작 상황을 살펴보고 각종 문체의 작법상의 특징을 총결하여 前人の 창작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이 부분은 劉勰의 문학이론의 기초를 다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劉勰의 문학창작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選文以定篇」과 「數理以舉統」, 二項은 文體論 가운데 열거되어 있지만, 「選文以定篇」은 批評論과 함께 討論하고 「數理以舉統」은 創作論과 함께 論議되어야 한다.²⁸⁾ 왜냐하면 「選文以定篇」은 작가와 작품의 品評에서 출발하고 있고, 「數理以舉統」은 各種 文體의 風格과 作法·禁忌事項 등 구체적인 문학의 創作要領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文心雕龍》 全書を 보면 劉勰의 文體論·創作論·批評論은 前後呼應하며 全書を 貫通하고 있다.²⁹⁾

「原始以表末」·「釋名以章義」·「選文以定篇」·「數理以舉統」³⁰⁾ 네 가지 강령의

27) 〈哀弔〉篇의 作法과 禁忌事項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原夫哀辭大體, 情主於痛傷, 而辭窮乎愛惜, 幼未成德, 故誓止於察惠; 弱不勝務, 故悼加乎膚色, 隱心而結文則事慳, 觀文而屬心則體夸, 夸體爲辭, 則雖麗不哀; 必使情往會愁, 文來引泣, 乃其責耳。」

28) 文體論과 創作論의 밀접한 관계는 《文心雕龍學刊》 第六輯(文心雕龍學會編, 齊魯書社, 1992)에 수록되어 있는 戚良德的 〈論文敍筆初探〉에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29) 王更生 《文心雕龍研究》(臺灣, 文史哲出版社, 1984), 322, 339, 409쪽 참조.

30) 郭紹虞는 文體論 四大綱領과 曹丕《典論·論文》·陸機의 〈文賦〉· 韓愈의 〈文章流別論〉 등과

서술을 보면, 특히 문체의 起源을 經典에서 찾고, 經典의 특징인 「訓詁」와 「典雅」·「雅麗」를 具備한 작품을 높이 평가했으며, 「言志」와 「持人情性」을 강조한 것 등은 모두 劉勰 宗經思想의 표현이다. 이러한 표준은 성인 문장의 특질을 기초로 하고 經典을 典範으로 한 것으로 모두 經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體乎經」의 具體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劉勰 文體論의 四大綱領은 모두 經典에 의거하여 서술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劉勰은 〈序志〉篇에서 「문장의 작용은 사실은 경전의 갈래인데, …… 그 본원을 살펴보면 경전이 아닌 것이 없다」³¹⁾고 하였으며, 특히 〈宗經〉篇에서 經典과 문체의 연원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論·說·辭·序의 문체는 《易經》에서 비롯되었고, 詔·策·章·奏의 문체는 《書經》에서 발원 되었으며, 賦·頌·誦·讚의 문체는 《詩經》에서 근본이 확립되었고, 銘·誄·箴·祝의 문체는 《禮記》에서 발단이 되었으며, 紀·傳·盟·檄의 문체는 《春秋》가 근본을 이루고 있다. 지극히 높은 것으로 규범을 세우고 무한한 넓음으로 영역을 개척하였다. 그러므로 諸子百家가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 五經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만약에 經典을 본받아 문장의 格式을 제정하고 경서중의 雅言을 취하여 文辭를 풍부하게 한다면, 이것은 마치 광산에서 銅을 주조하고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 것처럼 무진장한 것이 될 것이다. (故論說辭序, 則易統其首; 詔策章奏, 則書發其源; 賦頌讚讀, 則詩立其本; 銘誄箴祝, 則禮總其端; 紀傳盟檄, 則春秋爲根; 並窮高以樹表, 遠以啓疆, 所以百家騰躍, 終入環內者也. 若稟經以製式, 酌雅以富言, 是卽山而鑄銅, 煮海而爲鹽也.)

이 단락은 經典과 後世 文體와의 영향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경전은 모두 「首」·「源」·「本」·「端」·「根」으로써 經典은 바로 各種 문체의 根源³²⁾이며 各種 문체는 經典속에 갖추어져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宗經〉篇에서 언급하지 않은 哀弔·雜文·諧謔·諸子·議對·封禪·書記 등의 文體도 모두 五經에서 비롯되었다. 즉, 議對는 《書經》에서, 雜文·諧謔은 《詩經》에서, 哀弔·封禪은 《禮記》에서, 書記는 《春秋》에서, 諸子は 五經에서 그 淵源을 찾을 수 있다.³³⁾

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中國文學批評史》: 「此四項中, 前(1)(2)項(「稱名以章義」·「敷理以舉統」)同於陸機(文賦)而疏解較詳, 第(3)項(「原始以表末」)同於擘實《流別》而論述較備, 第(4)項(「選文以定篇」)又略同魏文《典論》李充《翰林》而評斷較允. 所以卽就文體之研究而言, 《文心雕龍》亦集以前之大成矣。」(臺灣, 明倫書局, 1975), 上卷 第四篇 132쪽.

31) 劉勰 〈序志〉篇: 「文章之用, 實經典枝條, …… 詳其本源, 莫非經典。」

32) 劉勰의 이러한 說은 北齊 顏之推의 呼應을 받았다. 《顏氏家訓·文章》: 「文章者, 原出五經. 詔命策檄, 生於書者也. 序述論議, 生於易者也. 歌詠賦頌, 生於詩者也. 祭祀哀誄, 生於禮者也. 書奏箴銘, 生於春秋者也。」

IV. 文體分類

《文心雕龍》의 文體論 二十篇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문체를 보면 劉勰의 文體論에는 세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劉勰의 문체분류는 당시 통용되던 文筆의 兩分에서 시작하고 있다. 즉, 劉勰은 〈序志〉篇에서 「論文敍筆, 則固別區分」라고 하여 문체를 「文」과 「筆」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문필의 구분은 당시에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文」은 詩·樂府·賦 등의 韻이 있는 문체를 나타내고, 「筆」은 史傳·諸子·論·說 등 韻이 없는 문체를 가리킨다.³⁴⁾ 劉勰의 이러한 분류는 다른 篇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文」과 「筆」이 서로 다른 부류임을 나타내고 있다.³⁵⁾

劉勰은 文筆의 양분법을 기초로 文體論 二十篇을 「論文」과 「敍筆」로 나누고 있는데, 「論文」은 韻文인 〈明詩〉·〈樂府〉·〈詮賦〉·〈頌贊〉·〈祝盟〉·〈銘箴〉·〈誄碑〉·〈哀弔〉·〈雜文〉·〈諧謔〉 前十篇을 말하며, 「敍筆」은 散文인 〈史傳〉·〈諸子〉·〈論說〉·〈詔策〉·〈檄移〉·〈封禪〉·〈章表〉·〈奏啓〉·〈議對〉·〈書記〉 後十篇을 말한다. 이 二十篇의 篇名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문체가 들쭉 단계이고, 각 편에서 다루고 있는 細目이 셋째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는 劉勰의 文體論 구조가 체계적이고 完整하며 매우 조리 있게 서술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二十篇의 篇名을 보면 劉勰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류 방법을 엿 볼 수 있다. 단독의 대표문체를 설정한 篇章은 〈明詩〉·〈樂府〉·〈詮賦〉·〈史傳〉·〈諸子〉·〈封禪〉 등이고, 서로 성격이 비슷한 두 문체를 하나로 묶어 설정한 편장은 〈頌贊〉·〈祝盟〉·〈銘箴〉·〈誄碑〉·〈哀弔〉·〈諧謔〉·〈論說〉·〈詔策〉·〈檄移〉·〈章表〉·〈奏啓〉·〈議對〉 등이며, 특히 「王者之言」인 〈詔策〉·〈檄移〉·〈封禪〉을 한 組로, 「臣子之作」인 〈章表〉·〈奏啓〉·〈議對〉를 한 組로 하여 순서대로 위치시키고 있다.³⁶⁾ 이 밖의 해당사항이 없는 많은 문체들은 韻의 有無에 따라 구별하여 韻이 있는 것은 〈雜文〉에 수록하였고, 韻이 없는 것은 〈書記〉에 포함시켰다. 〈雜文〉에 對問·七發·連珠 등 39가지 문체를 수록하였고 〈書記〉에는 表奏·奏書·牋·奏記 등 32가

33) 詳細한 內容은 李曰剛 《文心雕龍駁詮》(臺北, 國立編譯館, 1982) 73-76쪽 및 王更生 《文心雕龍研究》(臺灣, 文史哲出版社, 1984) 324-325쪽 참조.

34) 〈總術〉: 「今之常言, 有文有筆, 以爲無韻者筆也, 有韻者文也。」

35) 〈體性〉: 「是以筆區雲霧; 文苑波龍者矣。」

〈章句〉: 「裁文匠筆, 篇有大小, …… 斯因情趣之指歸, 文筆之同致也。」

〈總術〉: 「文場筆苑, 有術有門。」

36) 王更生 《文心雕龍讀本(上)》(臺灣, 文史哲出版社, 1988), 373쪽 참조.

지 문체를 수록하고 있다. 동시에 〈雜文〉과 〈書記〉를 「文」과 「筆」의 末에 놓았다. 단지 「文」類의 〈諧謔〉은 〈雜文〉보다 뒤에 위치시키고 있는데, 이는 당시 諧謔類의 문장을 각종 문체 가운데의 九流 밖의 소설과 같이 취급하던 전통적인 문학관념의 영향 때문이다.³⁷⁾ 劉勰도 諧謔類의 문장을 「不雅」³⁸⁾라고 여겼지만 그 실용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여 당시 오랫동안 사람들이 중시하지 않던 諧謔類의 문장을 文體論에 포함시킨 것이다.³⁹⁾

劉勰의 이러한 문체분류에는 총 176종류의⁴⁰⁾ 문체가 들어있는데, 篇名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문체들은 모두 五經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음은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목까지 포함한 그 구체적인 숫자를 살펴보기로 하자.

《易經》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는 문체는 9종류가 있는데 모두 〈論說〉篇에 있다. 《書經》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는 문체는 29종류가 있는데 〈詔策〉·〈章表〉·〈奏啓〉·〈議對〉 4편에 있다. 《詩經》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는 문체는 66종류가 있는데 〈明詩〉·〈樂府〉·〈詮賦〉·〈頌贊〉·〈雜文〉·〈諧謔〉 6편에 있다. 《禮記》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는 문체는 20종류가 있는데 〈祝盟〉·〈銘箴〉·〈誄碑〉·〈哀弔〉·〈封禪〉 5편에 있다. 《春秋》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는 문체는 51종류가 있는데 〈史傳〉·〈檄移〉·〈書記〉 3편에 있다. 諸子は 五經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⁴¹⁾

이러한 文體論 二十篇의 分類와 經典과의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7) 〈諧謔〉: 「文辭之有諧謔, 譬九流之有小說, 蓋稗官所采, 以廣視聽。」

38) 〈諧謔〉: 「本體不雅, 其流易弊。」

39) 陸侃如·牟世金 《文心雕龍譯注(上)》(濟南, 齊魯書社, 1984) 179쪽과 王更生 《文心雕龍讀本(上)》(臺灣, 文史哲出版社, 1988), 255-256쪽 참고.

40) 학자들간에 文體論에서 다루고 있는 文體의 總數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本稿에서는 蔡宗陽의 견해를 따름. 蔡宗陽 《劉勰文心雕龍與經學》(國立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 博士論文, 1989. 5) 참조.

41) 蔡宗陽 《劉勰文心雕龍與經學》(國立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 博士論文, 1989.5) 134-138쪽 참조.

〈文體論 二十篇의 分類와 經典과의 關係〉

論文 敍筆	編名	細目	文體 數	淵源
文	〈明詩〉	詩, 四言, 五言, 三言, 六言, 雜言, 離合, 回文, 聯句	9	《詩經》
	〈樂府〉	樂府, 平調, 清調, 瑟調, 鼓吹, 繞歌, 挽歌	7	《詩經》
	〈詮賦〉	賦	1	《詩經》
	〈頌贊〉	頌, 贊, 風, 雅, 序, 引, 評	7	《詩經》
	〈祝盟〉	祝邪, 罵鬼, 謔, 呪, 詰咎, 祭文, 哀策, 詛, 誓, 歆辭, 祝, 盟	12	《禮記》
	〈銘箴〉	銘, 箴	2	《禮記》
	〈誄碑〉	誄, 碑, 碣	3	《禮記》
	〈哀弔〉	哀, 弔	2	《禮記》
	〈雜文〉	對問, 七發, 連珠, 客難, 解嘲, 賓戲, 達旨, 應問, 答議, 釋誨, 客傲, 客問, 客咨, 七激, 七依, 七辨, 七蘇, 七啓, 七釋, 七說, 七諷, 七厲, 典, 詰, 誓, 問, 覽, 略, 篇章, 曲, 操, 弄, 引, 吟, 風, 謠, 詠, 雜文	39	《詩經》
	〈諧謔〉	諧, 謔, 謎語	3	《詩經》
筆	〈史傳〉	史, 尚書, 春秋, 傳, 策, 紀, 書, 表, 志, 略, 錄	11	《春秋》
	〈諸子〉	諸子	1	五經
	〈論說〉	論, 說, 議, 傳, 注, 贊, 評, 序, 引	9	《易經》
	〈詔策〉	詔, 策, 命, 詰, 誓, 制, 策書, 制書, 詔書, 戒敕, 戒, 敕, 教	13	《書經》
	〈檄移〉	檄, 移, 戒誓, 令, 辭, 露布, 文移, 武移	8	《春秋》
	〈封禪〉	封禪	1	《禮記》
	〈章表〉	章, 表, 上書, 奏, 議	5	《書經》
	〈奏啓〉	奏, 啓, 上疏, 彈事, 表奏, 封事	6	《書經》
	〈議對〉	議, 對, 駁議, 對策, 射策	5	《書經》
	〈書記〉	書, 記, 表奏, 奏書, 牋, 奏記, 奏牋, 譜, 籍, 簿, 錄, 方, 術, 占, 式, 律, 令, 法, 制, 符, 券, 契, 疏, 關, 刺, 解, 牒, 籤, 狀, 列, 辭, 諺	32	《春秋》

V. 結論

《文心雕龍》의 文體分類에서는 篇名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문체가 33종류이고 細目까지 계산하면 총 176종류의 문체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체분류는 曹丕의 四科八類, 陸機와 擘虞의 서로 다른 11종류의 분류와 비교해 보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이러한 劉勰의 문체분류를 보면 曹丕·陸機·擘虞 등 기존의 문체분류를 참고했으며, 당대 文論의 精화를 흡수하고 당대 통용되던 문체를 기초

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文體論 二十篇은 모두 四大綱領인 「原始以表末」·「釋名以章義」·「選文以定篇」·「數理以舉統」에 의하여 일관되게 서술되어 있다. 즉, 各種 문체의 起源과 發展變化, 各種 文體 命名의 由來와 涵義, 各種 文體의 代表的인 작가와 작품, 各種 文體의 風格과 作用 및 作法과 禁忌事項 등을 文體論 二十篇의 어느 篇章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文體論 二十篇은 단지 문체만을 서술한 것이 아니고, 劉勰 이전의 각종 문체의 창작경험을 總結했다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 四大綱領은 經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劉勰이 宗經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體乎經」의 具體的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文體論 四大綱領의 서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文原論을 기본으로 創作論과 批評論의 밑거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은 創作論과 批評論 그 자체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劉勰의 文體論은 文原論·創作論·批評論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文心雕龍》 全書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文體論 二十篇을 忽視하면 다른 이론은 그 근거와 이론체계가 부실해지며 더 나아가서는 《文心雕龍》이라는 거대한 저서의 的確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愚를 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직도 일부 학자는 《文心雕龍》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文體論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文體論 연구를 건너뛰고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章學誠이 《文史通義》에서 《文心雕龍》의 체계를 「體大慮周」라고 한 이래 《文心雕龍》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대표적인 引用句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文心雕龍》의 文體論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아마도 이러한 劉勰의 文體論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參考文獻】

- 黃侃《文心雕龍札記》臺北，文史哲出版社，1973
陸侃如·牟世金《文心雕龍譯注》濟南，齊魯書社，1984
范文瀾《文心雕龍注》홍콩，商務印書館，1986
周振甫《文心雕龍今譯》홍콩，中華書局香港分局，1986
周振甫《文心雕龍注》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8
牟世金《文心雕龍研究》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5
王運熙《文心雕龍探索》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6
王更生《文心雕龍研究》臺北，文史哲出版社，1984
王更生《文心雕龍讀本》臺北，文史哲出版社，1988
王更生《文心雕龍新論》臺北，文史哲出版社，1991
李日剛《文心雕龍辭詮》臺北，國立編譯館，1982
詹鍈《文心雕龍義證》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9
王禮卿《文心雕龍通解》臺北，黎明文化公司，1986
文心雕龍學會編《文心雕龍學刊》第六輯，濟南，齊魯書社，1992
中國文心雕龍學會選編《文心雕龍研究論文集》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0
蔡宗陽《劉勰文心雕龍與經學》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博士論文，1989.5
黃河《文心雕龍文體研究的美學意義》：《華僑大學學報(哲社版)》1994年3期
詹福瑞《宗經與文心雕龍的理論體系》：《河北大學學報(哲社版)》1994年4期
程新煒《中國古代文體論淵源與文心雕龍》：《青海師範大學學報(哲社版)》1995年3期
郭紹虞《中國文學批評史》臺北，明倫書局，1975
杜保憲《魏晉南北朝文論選析》濟南，山東教育出版社，1983
夏傳才《中國古代文學理論名篇今譯》第一冊，天津，南開大學出版社，1985

【中文提要】

《文心雕龍》中從〈明詩〉到〈書記〉的二十篇是「論文敘筆」。這二十篇分別論述了每種文體的發展概況及其特點，所以通常稱這二十篇為劉勰的文學體裁論。但這二十篇，並不僅僅是論述文體，更主要的還是分別總結劉勰以前各種文體的寫作經驗。「論文敘筆」的具體內容，〈序志〉篇講到四個方面：原始以表末，釋名以章義，選文以定篇，敷理以舉統。此四大綱領，或述文體的源流與變遷，或言文體命名的涵義與由來，或舉出各體文章的代表作家與作

品，或論述各種文體的作法與特徵，而莫不與經典息息相關，正是「體乎經」的具體表現。

劉勰文體論的四大綱領，皆以經典為依據，發展出各得其宜的風格，值得注意的是，「選文以定篇」與「敷理以舉統」二項，雖然列於文體論中，然而「選文以定篇」實應與批評論一起討論，而「敷理以舉統」則應與創作論一起看待。所以，「選文以定篇」處處由品評出發，「敷理以舉統」則處處是創作要領的指導。我們研究《文心雕龍》決不可忽視文體論這一部分重要內容。由《文心雕龍》的全面架構而言，劉勰的文原論、文體論、創作論與批評論，前後照應貫通全書。

【主題語】

《文心雕龍》，文體論，論文敘筆，四大綱領，宗經，文體分類